산이 만든 것을 그대로… 美 와이너리 '마야카마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41

마야카마스 보틀 /안상미 기자

산이 만든 것을 있는 그대로 옮겨 담고, 완성은 시간에 맡긴다. 130년이 넘게 지났지만 방식은 변함없다. 이른 수확으로 자연 산도를 지킨다. 양조도 포도즙에 영향을 가장 덜 미치도록 개방형 콘크리트에서 발효하고, 길게는 100년 이상된 대형 오크통에서 숙성한다. 사람의 손길을 줄이니 마운트 비더의 서늘한 고도감이 한 병에 고스란히 담겼다. 나파밸리의 고전, 마야카마스다.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자리한 와이너리 마야카마스에서 글로벌 세일즈를 총괄하고 있는 캐시 콘(Cathy Cohn) 부사장은 "1976년 파리의 심판으로 미국 와인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좀 더 힘있는 스타일로 오크숙성을 많이 하는 등 나파밸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마야카마스는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했다"며 "나파밸리에서 아름다운 전통 스타일로 와인을 계속 만들어온 몇 안되는 와이너리 중 하나로 지금의 마야카마스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마야카마스는 1889년에 설립돼 나파밸리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중 한 곳이다. 긴 역사 만큼 주인도 많이 바뀌었는데 모두 지금의 마야카마스를 있게한 원동력이 됐다.

설립자 존 헨리 피셔는 1880년대 당시만 해도 험준하고 외졌던 마운트 비더라는 천혜의 땅을 선점했다. 1941년에 매입한 잭과 메리테일러 부부는 이곳에 처음으로 카베르네 소비뇽과 샤르도네를 식재했다. 와이너리가 마야카마스란 이름을 가진 것도 이때부터다. 지금의 와인 스타일을 확고하게 구축한 것은 1968년 밥 트래버스가 인수하면서다. 밥은 하이츠 셀러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와인 양조 방식에 대해 확신이 있었고, 그 결과는 1976년 파리의 심판에서 1971 빈티지가 10위 안에 들며 증명됐다. 미국 패션기업인 아메리칸 이글의 쇼텐스타인 회장이 지난 2013년에 마야카마스를 사들여 새로운 양조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지만 양조만큼은 전통 방식을 그대로를 이어가고 있다.

마운트 비더에 위치한 마야카마스 포도밭은 고도가 해발 550~730m에 달한다. 산파블로 만에서 밀려오는 서늘한 안개와 오후의 그늘은 나파밸리의 햇살이 아니라 서늘한 고도의 영향을 더 크게 한다.

시작은 카베르네 소비뇽이 아닌 샤도네이 부터다. 단순히 화이트 와인이어서가 아니라 마야카마스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다.

'마야카마스 샤도네이 2023'은 나파밸리 샤도네이라고 하면 떠올릴 모든 고정관념을 깨버린다. 2023년은 따뜻했음에도 산도는 압도적이었고, 열대과일의 풍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감귤류의 과실미에 캐모마일과 흰꽃 아로마가 어우러진 가운데 여운은 길지만 깔끔하다.

카베르네 소비뇽은 2020 빈티지와 2021 빈티지를 비교해본다. 2020년은 더웠고, 2021년은 추웠다.

'마야카마스 카베르네 소비뇽 2021'는 봄엔 추웠지만 화창한 여름을 반영하듯 산도가 좋고 과실미도 풍성하다. 타닌도 보통 진한 나파밸리 카베르네 소비뇽의 텁텁함이 아닌 깔끔하게 느껴진다.

'마야카마스 카베르네 소비뇽 2020'은 과실의 완숙미를 느낄 수 있는 빈티지다. 굉장히 더웠던 해로 산불이 나기 전 조기 수확에 나서면서 피해가 없었다. 2020이 지금 마시기 좋다면 2021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와인이다.

캐시는 "마야카마스는 레드 와인도 1940년대부터 해왔던 방식 그대로 콘크리트 발효조를 쓰지만 나파밸리에서는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이와 함께 다른 와이너리에서 최장 3개월까지 하는 발효도 15~20일 안팎 정도로 짧게해 과실미와 산도를 유지하고 숙성력을 키운다"고 전했다.

피날레는 2003 빈티지가 장식한다. 왜 마야카마스인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으니 말이다.

'마야카마스 카베르네 소비뇽 2003'은 23년이 지났지만 잔에 따랐을 때 색이 최근 빈티지와 크게 차이없이 가장자리 정도만 숙성이 좀 됐구나 싶을 정도다. 블루베리같은 과실과 함께 제비꽃, 세이지의 향이 복합적으로 피어났고, 특유의 신선한 산도도 그대로 살아 있다.

캐시는 "마야카마스가 왜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 와인을 만드는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2003 빈티지"라며 "현재 최고의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30년은 더 숙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야카마스는 지역 원주민 언어로 울부짖는 산사자(퓨마)를 뜻한다. 나파밸리와 소노마를 가르듯 자리한 마야카마스 산맥 일대에는 퓨마가 많이 서식해 그들의 울음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라벨도 자세히 보면 대문자 'M' 안에 두 마리의 산사자를 찾아볼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외식업 컨설턴트의 'AI시대' 창업 전략

AI 인용 전략 등 경제경영 실용서

고객은 검색창을 떠났다
김유진 지음 / 도서담

외식업 컨설턴트가 각종 컨설팅 노하우를 담아 창업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책을 썼다. 식당·미용실·학원·병원·인테리어 업체 등 작은 사업자가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는지 다룬 경제경영 실용서다.

도서출판 도서담은 외식업 컨설턴트 김유진의 신간 '고객은 검색창을 떠났다'를 12일 출간한다.

한국형 장사의 신, 당신의 가격은 틀렸습니다 등을 쓴 김유진 저자는 이번엔 AI에게 가게와 서비스를 추천받는 고객에 주목했다.

책은 '강남역 맛집'이라는 검색어와, 부모님의 환갑 식사를 위해 예산·룸·주차 조건을 함께 설명하는 질문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사업자가 강조하고 싶은 장점뿐 아니라 고객이 방문 전에 확인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가게를 찾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정보를 갖추는 것이 책의 출발점이다.

검색엔진 최적화(SEO), 답변 엔진 최적화(AEO), 생성형 엔진최적화(GEO)의 개념을 설명한 뒤 이를 매장 소개와 고객 응대의 업무로 옮긴다.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의 일치, 자주 묻는 질문(FAQ) 작성, 이용 목적과 상황이 담긴 리뷰, 여러 온라인 채널의 정보 관리가 주요 내용이다.

실행에 필요한 예시도 담았다. 6장에서는 AI에게 인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 전략 10가지를, 7장에서는 브랜드 점검 질문과 FAQ 작성법, 리뷰 가이드, 프롬프트 템플릿 등 다섯 가지 실무 도구를 소개한다. 부록에는 필수 실행 규칙 100가지를 정리했다. 독자는 책에 실린 질문과 작성 틀을 자기 업종과 고객에 맞게 바꿔보며 읽을 수 있다.

고객이 어떤 경로로 찾아왔는지 확인하는 일도 강조한다. 저자는 온라인 분석 수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방문 경로를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고 기록하라고 권한다. AI 활용법을 소개하면서도, 실제 서비스의 품질과 고객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당부로 책을 마무리한다.

316쪽. 2만3800원.

롯데월드 "어드벤처 30분 먼저 즐기세요"

롯데멤버스와 '얼리파크인' 프로모션

롯데월드가 롯데멤버스와 함께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정식 개장 전 이용할 수 있는 '얼리파크인(Early Park-in)'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얼리파크인은 오는 20일 롯데월드 어드벤처 정식 개장 시간보다 30분 이른 오전 9시30분부터 입장할 수 있는 행사다. 석촌호수 산책로에 위치한 매직게이트를 통해 매직아일랜드로 입장한 뒤 아트란티스, 혜성특급, 자이로드롭 등 어트랙션 3종을 먼저 이용할 수 있다.

프로모션 예매는 오는 14일 오전 9시 롯데월드 어드벤처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시작한다. 전액 엘포인트 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 한정으로 진행한다.

롯데월드는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9월 한 달간 전액 엘포인트로 예매하면 본인과 동반 1인까지 롯데월드 어드벤처, 어드벤처 부산,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롯데월드 전용 경로를 통해 엘포인트를 충전한 뒤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추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CGV, '월간신촌' 평균 객석률 50% 돌파

이달 이누야샤·은혼 상영

CGV는 신촌아트레온에서 운영하는 재패니메이션 전용 상영 프로그램 '월간신촌'이 평균 객석률 50%를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시작한 월간신촌은 CGV신촌아트레온 1개 상영관에서 매일 1~2회씩 일본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작과 기존 작품을 연중 상시 편성하고 선행 상영회, 4DX 특별 상영, 코스프레·드레스코드 상영회, 관객 특전 등의 이벤트를 함께 운영한다.

CGV는 월간신촌을 통해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키르케의 마녀'를 4DX와 SCREENX로, '걸즈 앤 판처 최종장' 시리즈를 4DX로 특별 상영했다. '극장판 암살교실 모두의 시간' 코스프레 상영회와 '블리치 천년혈전 편: 화진담' 드레스코드 상영회도 진행했다. '모노노케 히메', '마녀배달부 키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천공의 성 라퓨타' 등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과 '기동전사 건담 I', '기동전사 건담 II 애전사', '기동전사 건담 III 만남의 우주' 등도 상영했다.

이달에도 상영과 이벤트를 이어간다. '이누야샤 극장판: 시대를 초월한 마음'은 9일 개봉에 앞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선행 상영회를 진행했다. 오는 13일에는 관객이 캐릭터 코스프레를 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코스프레 리액션 상영회를 CGV신촌아트레온에서 단독으로 진행한다.

'신극장판 은혼: 요시와라 대염상'은 4DX 단독 개봉을 기념해 오는 15일까지 CGV신촌아트레온 4DX 관람객을 대상으로 홀로그램 포스터를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사진 뉴시스

▲ 트럼프 "공화당에 투표하라… 중간선거 지면 지옥"

▲ 트럼프 밈코인 "사기"라던 바이든 차남, 코인 출시했다가 98% 폭락

▲ "이란 곡괭이산 핵시설 건설 활발… 美, 지하 깊숙한 곳 타격 고심"

▲ 극우 견제 나선 獨메르츠, AfD 반이민 정책에 "인종 청소"

▲ 中기상당국 "네팔에 중국산 AI 기상경보 정보 제공"

▲ 아베 뛰어넘었다… 日다카이치 내각 국정평가 역대 최고